

## 이슬람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

### 자힐리야-살라피즘-타즈디드-타크피르-지하드 개념을 중심으로

Theoretical Grounds of the Islamic Revival Movement - Focused on the Concepts of Jahiliyyah-Salafism-Tajdid-takfir-Jihad -

---

저자 (Authors)	최원진 Weon jin Choi
출처 (Source)	<a href="#">Muslim-Christian Encounter</a> 11(2), 2018.9, 151-186(3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a>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8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81</a>
APA Style	최원진 (2018). 이슬람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 <i>Muslim-Christian Encounter</i> , 11(2), 151-186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14:55:49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이슬람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 : ‘자힐리야-살라피즘- 타즈디드-타크피르-지하드’ 개념을 중심으로

최원진\*

- I. 서론
- II. 이슬람부흥운동의 이해
- III. 이슬람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
- IV. 이슬람부흥운동의 특성
- V. 결론

\* 침신대 선교학 교수

##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와 같은 공통적 가치와 규범이 확산되면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로 커졌다.<sup>1</sup> 19세기 말까지 종교는 쇠퇴하고 과학이 그것을 대치할 것이라는 예견과는 달리 사람들은 더 종교적으로 바뀌어 가고 종교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전 세계 무슬림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숫자가 기독교를 제치고 신도수 1위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sup> 이슬람의 부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슬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이고, 외부적으로는 이슬람의 문화, 제도 및 종교를 비이슬람 국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모든 무슬림이 이슬람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 초기 이슬람 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신정국가를 표방하고 샤리아(Sharia)가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오일달러의 위력과 이슬람 채권, 그리고 할랄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슬람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슬람의 부흥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시작되고 전

1 김성건,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한국종교학회』 제31집 (2003년 6월): 119.

2 Robert N. Bellah,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70), 238.

3 “2050년 유럽 인구 ‘10명 중 1명’ 무슬림... 이슬람교 ‘세계 1위’ 종교돼,” 2017년 3월 15일 [온라인자료]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20&nid=693>, (2018년 7월 9일 접속).

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이슬람부흥운동의 이해

본 논문의 제목을 ‘이슬람부흥운동’<sup>4</sup>이라고 한 것은 이슬람의 부흥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 부터 계시를 받아 이슬람이 태동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꾸란에 대한 해석과 영향력 있는 이슬람 학자들의 사상에 따라 이슬람이 점차 다른 모습과 형태로 자신들의 부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내부적으로는 “물리적 힘에 의존하여 이슬람 사회를 건설하려는 급진주의적 경향, 이슬람법을 국가의 제도 속에서 실

4 이슬람 부흥운동을 주창자들은 이 용어를 이슬람부흥(*al-bath al-Islami*, Islamic Renaissance), 이슬람 각성(*al-sahwa al-Islamiyya*, Islamic awakening), 종교부흥(*ihya'ad-din*, religious revival), 이슬람근본주의(*al-usuliyya al-Islamiyya*, Islamic fundamentalism)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정통주의, 이슬람 부흥운동, 이슬람 행동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 정치운동, 이슬람 급진주의, 이슬람 과격주의, 이슬람 호전주의, 이슬람 테러리즘”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슬람 부흥운동이 이슬람 원리주의와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손주영은 이슬람 부흥주의(Islamic Revivalism)는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 근대 이슬람 개혁주의(Modern Islamic Reformism), 이슬람주의(Islamism), 이슬람의 부활(Islamic Resurgence),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 이슬람의 재주장(Islamic Reasser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Ideologization of Islam)라는 정치적 용어까지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만이 현대 이슬람 국가와 사회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나 이슬람 부흥주의는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한다.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1권 (2001): 2.

현하려는 근본주의적 경향, 이슬람 의무 수행을 강조하지만 이슬람의 제도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개혁주의적 경향, 전통적인 이슬람 실천 방식을 지지하고 종교적 믿음의 측면을 강조하는 전통주의적 경향,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종교해석을 지지하는 신근대주의적 경향, 그리고 종교적 의무 수행에 무관심하며 혼합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혼합주의적 경향” 등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이 공존한다.<sup>5</sup> 이렇게 다양한 이슬람 그룹이 자신들의 종교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슬람부흥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과격한 이슬람과 연관하여 이루어졌다. 이슬람부흥운동은 분명히 이슬람 근본주의 내지는 호전적이고 급진적인 이슬람과 연관이 있다.<sup>6</sup> 이슬람 내부에는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성숙을 위해 투쟁을 하는 무슬림이 있는가 하면,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슬람의 부흥을 꾀하는 지하드(*Jihad*) 그룹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슬람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권 내부에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반외세, 반세속을 외치며 자신들의 정통성과 이슬람의 전통과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

5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권 3호 (2013): 206.

6 1920년대 미국에서 출현한 근본주의 운동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9년도이다. 근본주의적 TV 설교자 제리 팔웰(Jerry Falwell)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도덕적 다수”(the Moral Majority)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이란의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다. 호메이니는 혁명을 일으키고 62명의 미국인을 14개월 동안 인질로 억류하는데, 이때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의 종교적 우파세력과 이란이나 중동의 급진적 무슬림을 비교분석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라는 개념이 태동되었다. 무슬림 세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는 아랍어 ‘우슬리야’(Usuliyah)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부흥’을 의미하는 ‘나흐다’(Nahdah)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김정위, “이슬람 원리주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권 (1993년 12월): 101-14; 권형기, “이슬람교 원리주의: 기원과 본질,” 『종교학연구』 13권 (1994): 149-64.

을 ‘이슬람부흥운동’(Islamic Revivalism)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슬람부흥운동의 시작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와 가르침이 변질되기 시작하자, 꾸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에 따라 초기 이슬람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르침을 실현하려는 순수한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슬람의 경전 중심적(Scriptural) 경향, 즉 꾸란과 하디스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literate) 해석해야 하고, 경전에 계시된 종교, 사회적 의무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슬람 초기부터 있었다. 이슬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슬람 안에서는 꾸란에 기초하여 초기 무함마드가 구축한 이슬람 움마(Ummah)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상과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집단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주장되었을 뿐, 이슬람 내부에서 그들의 종교적 지형을 변화시킬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sup>7</sup> 그 이유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식민지 체제 하에서 이슬람 관련 논쟁이 주로 대도시나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슬람 사회에 등장한 개혁주의(Reformism) 혹은 근대주의(Modernism)적 시각이 무슬림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시켰다.<sup>9</sup>

특히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패배, 많은 개발프로

7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182.

8 Mitsuo Nakamura, *The Crescent Arises over the Banyan Tree: A Study of the Muhammadiyah Movement in a Central Javanese Town, c. 1910s-201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2), 56.

9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182-83.

그램의 실패, 그리고 1979년 이란혁명은 무슬림 국가들 사이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슬림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1980년대 초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反)체제집단들이 출현하였다.<sup>10</sup> 이후 중동지역이 아닌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에서도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하여 이슬람 정신을 강화하고 이슬람식 사회체제를 구축하려는 여러 이슬람 종교단체의 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실패로 국가가 중요한 종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던 알제리와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11</sup>

세속정부의 등장과 근대화는 이슬람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서구의 생활방식에 익숙한 엘리트 지식인들과 전통문화에 익숙한 일반 대중 사이에 문화적 간격이 생겼다. 또한 일반 대중의 삶은 피폐해지고 세속정부가 전통적인 사회결속력을 무너뜨리면서, 사회는 점차로 도시화 되고 시골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열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이슬람부흥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위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슬람부흥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슬림 공동체 안에 서구사상과 신문물에 심취한 탈종교주의자들과 친서구 성향의 신세대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슬람 사회의 무능력함에 대한 좌절감과 서방의 경제 문화적 침투에 대한 반감이 고

10 김성진,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121.

11 Mahmood Monshipouri and Reza Motameni, “Globalization, Sacred Belief, and Defiance: Is Human Rights Discourse Relevant in the Muslim World,” *Journal of Church and State*, vol. 42 (Autumn 2000): 717.

조되면서 전투적 이슬람주의도 확산되었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이슬람 부흥운동은 이슬람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1970년대 말 세속적 민족주의자들과 근대 국가가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격화되었다.<sup>13</sup> 또한 이것은 이슬람의 정신과 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재창조하려는 노력이었다.<sup>14</sup> 다시 말해서, 이슬람부흥운동은 무슬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게 이슬람을 재해석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슬람의 개혁과 갱신을 도모하려는 일련의 사회적 움직임인 것이다.

## 2.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양상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통적 신념과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sup>15</sup> 이슬람부흥운동도 서구 식민주의의 상처와 1920년대 이후 세속주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부주도 근대화 프로그램이 실패하면서, 무슬림들 스스로 자신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는 일련의 활동이었다. 세계화의 조건 아래에서 사람들은 보수적인 ‘근본주의’(Fundamentalism)를 지향하거나 신앙을 사유화하고 사적인 신비경험(Personal, Spiritual Experienc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sup>16</sup> 이슬람부흥운동도 점차 ‘신앙부

12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생성동인과 전쟁양상,”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002년 12월): 145-46.

13 김성진,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125.

14 Harold A. Crouch, *Government and Society in Malay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170.

15 Jean-Paul Carvalho, “A Theory of the Islamic Revival,”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no. 424 (March 2009): 11.

16 Peter Beyer, *Religion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1994), 10;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00: The New Directions for 1990's*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0), 277.

흥주의’(Revivalism)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중심의 ‘종교분리주의’(Secularism)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930년대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 혼란, 사회경제의 쇠퇴, 유럽의 제국주의로 인해 이슬람부흥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특별히 그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가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회’(the Society of Muslim Brothers)를 창설하고, 마우라나 아부 알라 마우두디(Mawlana Abu ‘Ala Mawdudi)가 인도에서 ‘자마티 이슬라미’(Jama’at-i Islami)를 조직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sup>17</sup> 알반나와 마우두디는 이슬람 안에서 20세기 무슬림 사회의 사회역사적 조건에 맞도록 이슬람의 전통을 수용하여 다시 적용하려고 했다.<sup>18</sup> 그들은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개혁운동의 패러다임이 이슬람 초기 역사는 물론 17, 18세기 무슬림 세계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아라비아의 와하비(the Whhabi), 수단의 마디(the Mahdi), 나이지리아의 플라니(the Fulani), 리비아의 사누시(the Sanusi), 인도네시아의 파드리(the Padri)이다.<sup>19</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 국가에 독립정부가 들어서고 1950년대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들 부흥운동은 국가의 세속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에 밀려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새로운 세대가 1930년대의

17 Ira M. Lapidus, “Islamic Revival and Modernity: The Contemporary Movements and the Historical Paradigm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 40, no. 4 (1997): 445.

18 John L. Esposito, “Trailblazers of the Islamic Resurgence,”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39. 알반나와 마우두디의 이슬람 역사에 대한 재해석은 이슬람 사회의 수많은 근대 사회 윤리 개혁운동을 이끄는 사상과 관점이 되었다.

19 Ibid.

이슬람 부흥운동을 다시 촉발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이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the Muslim Brothers)과 자마트(the Jama’at), 튀니지의 ‘알 나다’(Al- Nahda), 알제리의 ‘이슬람 구국전선’(Islamic Salvation Front),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의 ‘자마티 이슬라미’(the Jama’at-i Islami), 레바논에서 일어난 ‘아말’(Amal)이나 ‘히즈볼라’(Hizbullah) 같은 시아파 운동 등이었다.<sup>20</sup> 이처럼 이슬람부흥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속적 문제를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결부시키려는 극단적 정치적 운동으로 변해갔다.

이슬람부흥운동이 근대에 들어와 극단적 정치 투쟁으로 바뀐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이슬람은 정교일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의 절반 이상이 구미열강의 식민지 내지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급진적 성향의 반서구, 반세속화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들 운동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무슬림이 꾸란과 순나, 그리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로의 회귀를 강조한다. 이브라힘(S. E. Ibrahim) 역시 모든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은 샤리아를 중심으로 한 제도라고 주장한다.<sup>21</sup>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부흥을 강조하는 사상가들 대부분이 샤리아를 근간으로 한 사회, 경제, 정치 개혁을 통해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20 Ibid.

21 S. E. Ibrahim, “Anatomy of Egypt’s Militant Islamic Groups: Methodological Note and Preliminary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12(4) (1980): 432–53.

### 3.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 배경

20세기 들어 이슬람부흥운동이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 탄압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이슬람 국가가 서구의 식민지배에서 독립을 하게 된다. 저마다 주권을 갖게 되고 정치권력이 견고해지면서 시작된 정치적 탄압이 젊은 세대, 특히 무슬림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종교이념을 떠나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된 사회적 연대의 재건에 적극적이었다.<sup>22</sup> 무슬림 대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소규모 종교 활동을 통해 이슬람식 교육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현실적 부조리를 극복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갔다.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 일어난 정치적 욕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매개로 표출되었고, 결국 이것이 종교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졌다.<sup>23</sup> 근대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는 이슬람부흥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sup>24</sup>

둘째,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한 도시 중산층이 대도시의 아노미적 상황에 대처할 대응책으로 이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들은 현대성과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싶어 했다. 또한 자신들의 정부가 경제 및 정치개혁에서 실패한 것은 세속적 자본주의 탓이라고 보고, 이슬람을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했다. 이들 도시 중산층이 이슬람부흥운동에 지대

22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근본주의,” 『종교연구』 제29집 (2002): 163.

23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187.

24 Andrew Beatty, *Varieties of Javanes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ccou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39.

25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187.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슬람부흥운동은 20대 초반의 젊은 층, 중산층 내지는 중하위층, 대학생, 도시 거주자, 최근 시골에서 작은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일어났다.<sup>26</sup>

셋째,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종교적 해석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등장한 ‘신근대주의’(Neo-Modernism)는 정부와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의 의무를 실천 할 수 있는 교리상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sup>27</sup> 이것은 또한 친서구적인 엘리트 무슬림이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마이클 바티키오티스(Michael Vatikiotis)는 “예전에, 이슬람은 낙후, 가난과 연결되어서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정체성에 대해 일정 정도 부끄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슬람은 더 이상 패배자의 종교로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sup>28</sup>

넷째, 이슬람 국가가 처한 정치현실 때문이다. 이집트의 안와르 알 사다트(Anwar al-Sadat), 수단인 자파르 알 누마이리(Ja'far al-Numayri),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어샤드(Muhammad Ershad),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가다피(Mu'ammarr al-Qadhafi), 말레이시아의 무함마드 마하티르(Muhammad Mahathir), 파키스탄의 지아울 하크(Zia ul-Haqq) 등의 지도자가 여러 무슬림 그룹을 지원하면서 이슬람은 점차로 부흥하게 되었다.<sup>29</sup>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으로 이집트는 점차로 쇠퇴하고, 사우

26 Carvalho, “A Theory of the Islamic Revival,” 9.

27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187-88.

28 Michael Vatikiotis,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Trimming the Banyan Tree* (London: Routledge, 1996), 153.

29 Yvonne Yazbeck Haddad,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An Introduction,”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10.

디아라비아가 새롭게 이슬람의 패권국가로 등장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사상과 이념에 근거하여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및 성지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게다가 1970년대 이후 유가폭등으로 인해 무슬림형제단이나 다른 종교기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슬람부흥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 TV, 영화, 새로운 미디어, 의복 문화 등 서구 문화의 대거유입,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과 이민, 이슬람관련 저술과 연구 활성화가 이슬람부흥운동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특별히 이슬람의 공격적인 '다와'(Da'wa) 정책, 높은 출생률, 이슬람 종교교육,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도 이슬람부흥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Ⅲ. 이슬람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

이슬람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슬람의 최종적이며 절대적 권위로 간주되는 꾸란(Quran)과 하디스(Hadith)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한다. 무슬림은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정의의 개념, 훌륭한 통치의 원칙을 끌어내고 싶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적 근거를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꾸란과 하디스로 돌아간다. 그것은 꾸란과 하디스에 이슬람 사회와 통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란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실천과 적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과격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폭력과 테러의 정당성을 꾸란

www.kci.go.kr

에서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슬람부흥운동 역시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 그리고 초기 개혁주의자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무슬림들을 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선지자 무함마드 역시 변화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이슬람식 답변을 내놓아야만 했다. 이슬람 부흥주의자들은 세속주의가 비이슬람적이며 탈종교주의라는 이유로 거부하지만, 서구의 현대식 과학과 기술은 무슬림 공동체에 해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주의, 세속적인 개혁주의, 민주적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형 사회적 급진주의 등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사상적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sup>30</sup> 20세기 이슬람 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무슬림이 당면한 종교, 문화, 정치,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해 꾸란에 근거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지면 관계상 이들 모두를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슬람부흥운동을 주장하는 몇몇 학자가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힐리아(*Jahiliyyah*)

과거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슬람부흥운동에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힐리아’(*jahiliyyah*)의 개념이다. 아랍어로 자힐리아는 “무지”를 의미한다. 이슬람에서는 전통적으로 무함마드에게 꾸란이 계시되기 이전의 시대를 ‘자힐리아’ 시대로 일

30 John Obert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23.

컸는다. 그런데 마우두디는 변질된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도 이 ‘자힐리야’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사이드 쿠틀(Sayyid Qutb)은 신실한 무슬림에 반대하는 자들도 자힐리야로 간주한다.<sup>31</sup> 쿠틀은 “우리가 근대 생활방식의 근거나 기초를 살펴보면 확실히 자힐리야의 시대이다. 놀라운 수준의 육신적 안락함이나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창조물도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자힐리야는 세상에서 신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 . . 그것은 단순하거나 초기 자힐리야 시대의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가치를 만들고, 공동체의 행동을 다스릴 법을 제정하고, 신이 정해놓은 것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달려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2</sup> 이것은 민족주의나 이집트의 사회주의 나세르 정부에 대한 쿠틀의 공격이었으며,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sup>33</sup>

## 2. 살라피즘(Salafism)

이슬람의 개혁을 통해 정통주의의 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9세기 중엽 아흐마드 이븐 한발(Ahmad ibn Hanbal)이다. 그는 비생산적인 교리논쟁을 종식시키고 이슬람의 신학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이슬람 부흥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세웠다. 그 후 14세기에 이븐 타이미야(Ibn Taimiya)라는 신학자가 ‘살라피’(salafi)운동을 주도하여 “신비주의, 범신론, 사변적 신학, 미신적인 요소로부터 이슬람의 정화”를 주장하였다.

역사상 오랜 시간동안 무슬림 공동체는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

31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27.

32 Sayyid Qutb, *Milestones*, rev. ed. (Cedar Rapids, Iowa: Unity Publishing, n.d.), 10–11.

33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27.

하면서 현 시대의 변화와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유효하며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대화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초기 이슬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도의 ‘아흐리 하디스’(Ahli-Hadis)나 쿠웨이트의 살라피스(Salafis)는 과거에서 그 모델을 찾았으며 공동체가 선지자 당시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공동체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up>34</sup> 이들은 이상적인 시대는 바로 이슬람 초기이며, 무슬림의 의무는 새로운 사상, 관습, 해석을 피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sup>35</sup>

‘살라피 운동’(The Salafiyah Movement)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무함마드 압둘 와합(Muhammad Ibn ‘Abd al-Wahhab)이다. 그는 이슬람 사회가 낙후되거나 몰락한 이유는 무슬림이 스스로 꾸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꾸란으로 돌아가 이슬람의 근본교리와 원리를 실천하는 진정한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와합은 알라의 유일성, 타우히드(*tawhid*)를 강조했다. 그는 알라와 신자 사이의 어떤 중보자도 거부했다. 수피즘이나 그들의 신앙행위도 철저히 배격하고, 성자승배나 성자의 무덤을 순례(*ziyarah*)하는 것도 반대했다. 꾸란에 적힌 가르침을 일차일획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와합의 교리는 이후 와하비즘이라는 근본주의 성향의 이슬람 종파로 발전했다.

34 Haddad,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4.

35 Ibid,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사회를 순수한 이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의 하나는 바로 알반나였다. 그의 사상은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알제리, 튀니지,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정치세력으로 구체화되었다.<sup>36</sup> 이 알반나의 사상은 이슬람의 전체성(Islam Totality)을 강조한 살라피야(al-Salafiyyah, 이슬람 복고주의)에서 출발했다. 또한 마우두디도 이슬람 국가를 꾸란에 기초한 완전한 신정주의(神政主義) 국가여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꾸란에 근거하여 유일신(tawhid) 신앙을 회복하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실현한 초기 이슬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살라피즘에 동의하기보다는 이슬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창의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로 이슬람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했다.<sup>37</sup> 그들은 원래의 이슬람을 현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슬람 초기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신학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무슬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무슬림이며, 알라는 인류가 꾸란에 계시된 대로 실행가능한 문명과 올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책임을 부여했다고 믿었다.<sup>38</sup>

### 3. 타즈디드(Tajdid)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변화를 위해 타즈디드(Tajdid, renewal)

36 이종택,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6권 2호 (2006): 2.

37 Ibid.

38 Ibid.

를 강조한다. 타즈디드는 이슬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다.<sup>39</sup>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100년마다 신앙의 부흥, 개혁, 갱신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sup>40</sup> 이것은 알라가 100년마다 신앙 갱신자로서 시대에 적합하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는 무자디드(*Mujaddid*)를 보낸다는 믿음에 근거한다.<sup>41</sup> 마우두디 역시 이슬람은 모든 시대에 필요하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알라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들 강한 인간과 기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sup>42</sup>

타즈디드의 개념은 현대의 부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슬람의 유산 중의 하나이다. 19세기 서부 아프리카의 유명한 부흥주의자 우스만 단 포디오(Uthman dan Fodio)와 유명한 이슬람주의 작가인 이브라힘 수라이만(Ibrahim Sulayman)은 타즈디드 과정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갈등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폭군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sup>43</sup> 그들은 알라가 이슬람이 봉기되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지자나 ‘무자디드’를 보내서 이슬람과 무슬림을 보호하고, 이슬람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39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24–25. 마우두디는 타즈디드(renewal)와 혁신(Innovation)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혁신은 타즈디드의 개념과 달리 새롭게 비이슬람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40 Haddad,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5.

41 Muhamad Zaid Ismail, etc., “*Islah and Tajdid: The Approach to Rebuilding Islamic Civil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vol.7, no. 8 (2017): 185.

42 Sayyid Abul A ‘la Maududi, *A Short History of the Revivalist Movement in Islam*, trans. al-Ash’ari, 3rd ed. (Lahore: Islamic Publications, 1972), 32–33. 마우두디는 알라만이 절대주권자이며, 입법자임과 동시에 사법권 행사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법인 이슬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통치의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을 계승한 것이 18세기 중엽 ‘와하비(Wahabi)’ 운동이다.

43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25.

믿는다.<sup>44</sup>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부흥은 바로 꾸란과 순나로 돌아가 이슬람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

#### 4. 타크피르(*takfir*)

이슬람부흥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평가해야 하는 무슬림의 사명 과도 연관이 있다. 타즈디드(*Tajdid*)의 사명은 무슬림의 신앙과 실천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나 그룹, 기관을 불신자라고 선언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을 이슬람에서는 ‘타크피르’(*takfir*, 파문)라고 말한다. 모든 무슬림은 선한 것을 권하고 악을 비난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무슬림을 불신자라고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심판은 오직 알라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초기부터 이 타크피르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 타크피르를 하는 무슬림을 전투적 부흥주의자로 분류하였는데,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카리지파(*Kharijites*)였다.

1960년대 부흥주의 사상가 쿠틀 역시 현 사회를 불신자(*Infidel*)로 간주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1970년대 이후 일어나고 있는 전투적 이슬람의 기초가 되었다. 쿠틀은 알 아자르 대학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 당시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였던 하산 알 후다이비(*Hasan al-Hudaybi*)도 무슬림은 심판자(*Judges*)가 아니라 설교자(*preach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지하드 그룹 사이에서 이 시대의 통치

44 Ismail, “Islah and Tajdid,” 188.

45 Voll, “The Revivalist Heritage,” 25.

자들은 배교자라는 주장이 일어났고, 결국 이집트의 무함마드 안와르 엘사다트(Muhammad Anwar el-Sadat) 대통령이 암살되었다. 이 암살범에 대한 재판에서 카리지파와 타크피르에 대한 비교가 다시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슬람은 정교일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 예배영역”과 “공동체 정부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sup>46</sup> 꾸란은 “민는 자들이여 하나님(알라)께 복종하고 선지자와 너희 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수라 4:59). 꾸란에서 말하는 이슬람의 신앙은 알라에게 복종하듯이 무함마드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독실한 자만이 통치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 정부를 세울 수 있고, 정부의 주된 기능도 꾸란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무슬림을 알라의 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7</sup>

이슬람에서는 정치가 사회와 공동체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올바른 이슬람식 정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알라만을 예배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꾸란이 정치적 정의와 사회경제적 평등의 구현을 무슬림에게 명령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수라 16:90).<sup>48</sup> 그래서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당시 서구 자본주의의 착취와 사회에 팽배해 있던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슬람에서의 사회 경제적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슬람 원리에 기초한 정치만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통치를 이룰 수 있으며, 국민에게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무슬림 사회에 만연

46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6.

47 Ibid., 6-7.

48 Ibid., 7.

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의가 무슬림의 의무이며, 무력에 의해서라도 실현되고 강제되어야 하는 최고의 정치원리이기 때문이다.<sup>49</sup> 이븐 타이미야의 제자 이븐 까임 알 자우지야(Ibn Qayyim al Jawziyyah)도 “정의가 바로 꾸란이 제시된 목적이고 예언자 사명의 주목적이며, 정의정치는 곧 종교의 일부”라고 주장한다.<sup>50</sup>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이슬람법의 회복이 이슬람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sup>51</sup>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부가 이슬람법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타도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크피르 조직은 이슬람 역사 초기에 카리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 사회를 무지(*jahiliyyah*)의 사회 혹은 무신론 사회로 간주하여 파문시키고, 이들 사회와 투쟁하였다.<sup>52</sup> 이들의 최종 목표는 기존 권력의 족쇄에서 벗어나 꾸란에 근거한 부활과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이슬람 초기 전파-이주-지하드”(da‘wa-hijra-jihad)의 형태로 진행되었다.<sup>53</sup>

## 5. 지하드(*Jihad*)

이슬람 부흥에 있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지하드(*Jihad*)이다. 지하드는 “알라의 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일반

49 Ibid.

50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7-8.

51 Malise Ruthven, *Islam in the World*,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370.

52 황병하,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의 이념적 단일성과 정치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6권 2호 (2006): 271-72.

53 Ibid.

적으로 지하드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자신을 향상시켜 이슬람 공동체를 돕기 위한 무슬림의 내적투쟁을 의미하며, 신에 대해 복종하고 지상에서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장이다.<sup>54</sup> 통치의 영역에서 이슬람은 그 지배자의 무슬림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무슬림의 봉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지하드는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메커니즘이다.<sup>55</sup> 따라서 “깊은 종교적 도덕적 분노로 무장하여 당시 부패한 아랍 사회에 반기를 들었던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은 무슬림으로서 흠결(欠缺) 없는 행위와 정치적 실천을 추구하는 지하드의 순수한 전범(典範)”이 되었다.<sup>56</sup> 그래서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글로벌 지하드의 정당성을 예언자 무함마드에게서 찾는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생, 그 이후의 이슬람 정복전쟁, 십자군 원정, 몽골침략에 대한 항쟁 등이 전통적으로 지하드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이슬람 초기부터 행동주의자들은 알라의 길에서 성전(聖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슬림에게 온전한 의미의 지하드는 알라 앞에서 자기성숙과 자기정화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내적 성숙을 강조하는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급진주의자들은 모든 무슬림이 성전을 위해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 때,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누구든지 강력한 지하드의 주창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하드를 통해서만 이슬람의 이데올로기가 실현되고 이슬람의 부활이 가능

54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생성동인과 전쟁양상,” 145.

55 Ibid.

56 Ahmed Rashid, *Taliban: Militant Islam, Oil and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 (New Heaven: Tale University Press, 2000), 87.

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57</sup> 꾸란 9장 111절은 “하나님(알라)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고 투쟁하며 또 순교하리니 그곳은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속된 것이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가 하나님과 성약한 것에 기뻐하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고 가르친다.<sup>58</sup> 이븐 타이미야 (Ibn Taymiyya)도 무슬림은 종교와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 불신자들과 싸워야 하며, 알라는 종종 이슬람의 부흥을 위해서 불경건한 무슬림조차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sup>59</sup> 꾸란 9장 12-14절은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에 투쟁하라. . . . 하나님(알라)은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라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믿음이 있는 백성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니라”고 말한다.

셔린 헌터(Shireen T. Hunter)는 이슬람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 아부 알 알라 마우두디

57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8. 지하드는 개인적 지하드, 움마적 지하드, 무용(폭력적)의 지하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개인적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벌이는 내적투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지하드이다. 움마적 지하드는 ‘다르 알 이슬람’(Dar al-Islam, 이슬람 영역) 내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벌이는 비폭력 투쟁을 말하며, 그리고 무용의 지하드는 ‘가장 가치가 적고 가장 낮은 지하드(Jihad-I-Asghar)로 비무슬림이나 침략자들과 벌이는 무력투쟁을 의미한다. 어떤 유형의 지하드이건 무슬림사이에서 지하드는 꾸란에 명시된 신의 약속이며, 무슬림 신앙의 일부이다. Mir Zohair Husain, *Global Islamic Politics*, 2nd ed. (New York: Longman, 2003), 48-49. 무함마드는 “만약 권위자가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마라(공동체적 지하드), 그러나 반역하지는 마라(군사적 지하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통치자와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싸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군사적 지하드를 허용한다는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지도자에 대한 군사적 지하드는 형제나 동족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금지하였고, 가장 위대한 지하드는 불공정한 통치자에게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Husain, *Global Islamic Politics*, 49.

58 수라 9: 14, 20; 4:76; 47:4-6; 3:169-170을 참고하라.

59 Michael Scott Doran, “Somebody Else’s Civil War,” *Foreign Affairs*, vol. 81 (January/February 2002): 31.

(Abu al-Ala Mawdudi), 사이드 쿠틀(Sayyid Qutb),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무함마드 바케르 아스 사드르(Muhammad Baqer as-Sadr), 압드 아스 살람 파라그(Abd as-Salam Farag), 사이드 하우와(Said Hawwa), 주하이만 알우타이비(Juhaiman al-Utaibi) 등을 꼽는다.<sup>60</sup> 이들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정교(*Din wa Dawla*)일치, 꾸란과 순나(Quran wa Sunna)의 권위, 셋째, 청교도주의와 사회정의(Puritanism and Social Justice)에 대한 의무, 넷째, 이슬람법 안에서의 알라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지하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한다.<sup>61</sup> 결국 이슬람부흥운동은 서구 식민주의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슬람 사회가 꾸란이 계시되기 이전처럼 무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의 초기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하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지하드는 매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왔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고 있다.

#### IV. 이슬람부흥운동의 특성

최근의 “세계화”와 “정보화” 물결은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현재 이슬람권 전역에 퍼진 이슬람부흥운동은 진공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외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세계

60 Shireen T. Hunter, ed., *The Politics of Islamic Revival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10.

61 Ibid., 10-11.

화가 이슬람의 범세계적 이데올로기화에 공헌을 하였다. 이 이슬람부흥운동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체성(Identity) 확보

이슬람부흥운동은 세상이 점차 세속화 되고 물질문명화 되어 가면서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추구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sup>62</sup> 이슬람부흥운동은 기본적으로 과거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지식인들인 율라마(ulama)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 계층인 설교자, 공동체 설립자, 지식인,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법, 신학, 철학을 근간으로 한 역사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칼리프, 이맘, 성자로 돌아가거나 역사적 정치적 개념의 부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윤리적 권위의 추상적 개념에 충성하는 새로운 이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sup>63</sup> 그들은 또한 서구 사상과 제도의 영향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몰락하자, 이슬람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만이 무슬림 공동체를 다시 부흥(nahdah)시킬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정치, 종교, 사회적 갱신(tajdid)과 개혁(islah)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64</sup> 꾸란에 기초한 해석과 종교적 실천 의무, 이슬람과 서구식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던 이 시각은 당연히 서구 문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했던 전통 이슬람 지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62 김성진,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105.

63 Lapidus, “Islamic Movement and Modernity,” 447-48.

64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2.

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구의 과학과 제도를 받아들여 서로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식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극복하려는 지적고뇌의 표현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다.<sup>65</sup>

## 2. 지속성(Continuity)

이슬람부흥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 온전한 의미의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의 생성초기부터이다. 무슬림들이 운동을 ‘이슬라’ (*islah*)라고 불렀고, 과거의 시간과 사상을 단순히 타클리드(*Taqlid*, 모방)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반대했다.<sup>66</sup> 인도의 사이드 아흐메드 칸(Sir Sayyid Ahmed Khan), 튀니지의 카이르 알딘 바샤(Khayr al-Din Basha), 이집트의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 이란의 자말 알딘 알아프가니(Jamal al-Din al-Afghhani)가 서구 학자들에 의해 근대주의자로 간주되는 이슬람 지도자들이다.<sup>67</sup> 이들은 18, 19세기 근대화에 발맞추어 이슬람의 가르침과 서구 유럽의 철학 및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sup>68</sup> 이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꾸란 구절은 수라 13장 11절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의 앞과 뒤에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알라)의 명령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심이라 실로 하나님(알라)께서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들의 상태를

65 김용현, “20세기의 중동, 21세기의 중동(5): 이슬람 ‘원리주의’의 형성과 역사” [온라인자료]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20&nid=693> (2018년 6월 9일 접속).

66 Haddad,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4.

67 Ibid.

68 Ibid.

변화시키지 아니 하시리라 하나님(알라)이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려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이슬람 사회를 개발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는 구절로 해석되었다. 무슬림은 신의 뜻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거나,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sup>69</sup>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사회를 개발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했을 뿐이며, 이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 초기부터 시작된 이슬람부흥운동은 17, 18세기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대두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이 운동은 과거와 달리 획일적이거나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으로 가시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

### 3. 확실성(Certainty) 추구

이슬람부흥운동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제도를 통해 현실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무슬림 대중들의 실망감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결국에 이슬람 근본주의나 과격한 이슬람 운동과 연결된 것이다. 브루한 갈리온(Burhan Ghalioun)은 “대중을 끄는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구체적 방안(programme)이 아니라 그것의 급진성”이었다고 주장한다.<sup>70</sup> 사실 이슬람 원리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했다. 그들은 또한 아랍 사회 변동의 주된 요소에 관한 과학

69 Ibid., 5.

70 Burhan Ghalioun, *Islam et politique: la modernité trahie* (Paris: La Découverte, 1997), 110.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근본주의,” 『종교연구』 제29집 (2002): 164. 재인용.

적 해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근거의 부족과 그 대안의 추상성이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sup>71</sup>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던 대중들에게 이슬람의 총체적이고 단순화된 사회해석과 처방이 확실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대중들을 동원하는데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sup>72</sup>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4년 6월 창설된 IS(Islam State)이다. IS의 창설과 바그다디의 칼리프 선언은 칼리프 국가의 부활 즉, 이슬람의 새로운 황금시대로의 복귀를 희망하게 만들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파괴의 잣터미로 고통 받던 수니파 무슬림들에게 이것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많은 이슬람 국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많은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부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IS의 등장은 많은 무슬림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sup>73</sup> 결국 급진적 성향의 지하디스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IS에 동조하였다.<sup>74</sup> 이 IS에 대해서는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이슬람의 부흥운동의 하나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71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근본주의,” 164.

72 Ibid, 갈리소(R. Gallissor)는 “민족적 미래가 사라질 때 종교가 사회적 유토피아의 최후의 담지자로 부활한다”고 말한다. René Gallissor, *Maghreb, Algérie: classes et nation: Tome 2* (Paris: Arcantère, 1987), 210.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근본주의,” 164, 재인용.

73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실천」 제57집 (2016): 291.

74 Samuel Laurent, 「IS 리포트」, 은정 펠스너 옮김 (서울: 한울, 2014), 217-18.

#### 4. ‘다와’(Da‘wa)를 통한 ‘전 세계 이슬람화’

이슬람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서로 유형은 다를지라도 공동체의 이즈마(*ijma*, 합의)와 이즈티하드(*ijtihad*, 독자적인 법 판단 행위)를 통해 근대화된 무슬림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sup>75</sup> 부흥주의자들의 비전은 모든 무슬림이 이슬람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이야(*da‘iya*)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슬람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대학에서 ‘다와’를 위한 샤리아 학교가 세워졌다.<sup>76</sup> 알 아자르 ‘다와’ 학교나 이들 기관들의 졸업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교육경력을 쌓았다. 실제로 근대 이슬람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비정치적, 정치적 ‘다와’ 기관들에 의해서였다. 이들 기관은 모든 무슬림을 종교적 부흥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 V. 결론

이슬람부흥운동은 19,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중의 하나이다. 근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금 등장한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만이 그 해결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회복을 주장한다.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순나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

75 Husain, *Global Islamic Politics*, 53.

76 Haddad,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15.

만, 저마다 이슬람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였다. 심지어 비무슬림, 세속 정치인,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지도자,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를 세속주의자로 간주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이러한 이슬람부흥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힐리야, 살라피즘, 타즈디드, 타크피르, 지하드가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이들 개념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슬람의 부흥은 바로 자신들의 무지(자힐리야)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슬람의 초기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살라피즘). 그리고 모든 무슬림은 부흥(타즈디드)을 위해 싸워야 하며, 이슬람을 거부하는 어떤 개인이나 정치세력, 혹은 적을 파문하고(타크피르), 필요하면 무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싸워야 한다(지하드)는 것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갱신과 외부적으로 복합적인 ‘다와’의 개념을 통해 이슬람의 부흥을 추구하지만 그것의 공통적인 패턴은 ‘자힐리야-살라피즘-타즈디드-타크피르-지하드’이다. 이러한 개념 모두가 이슬람 부흥운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슬람부흥운동의 내면에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 확보, 지속성(Continuity)과 확실성(Certainty)의 추구, 그리고 ‘다와’를 통한 ‘전 세계 이슬람화’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생성동인과 전쟁양상.”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002년 12월): 141-158.
- 권형기. “이슬람교 원리주의: 기원과 본질.” 『종교학연구』 13권 (1994): 149-64.
- 김성진.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한국종교학회』 제31집 (2003년 6월): 103-33.
- 김정위. “이슬람 원리주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권 (1993년 12월): 101-14.
- 김형준.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권 3호 (2013): 181-215.
- 손주영. “이슬람 부흥주의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1권 (2001): 1-31.
- 엄한진. “아랍세계 논의의 특징과 오리엔탈리즘적 전통.” 『아시아안리뷰』 제1집 (2011년 6월): 171-95.
- \_\_\_\_\_.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근본주의.” 『종교연구』 제29집 (2002): 147-67.
- 이종택.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6권 2호 (2006): 1-29.
- 정마태. “변화하는 무슬림 세계, 변화하는 무슬림 선교.” 『선교타임즈』 (2018년 1월): 76-80.
-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서울: SFC 출판부, 2004.
-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실천』 제 57집 (2016): 275-304.

- 최형근. “이슬람의 세계화와 기독교의 선교적 대응.” 「선교신학」 제 8집 (2004): 37-60.
- 황병하.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의 이념적 단일성과 정치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6권 2호 (2006): 259-286.
- Huntington, Samuel P.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2001.
- Laurent, Samuel. 「IS 리포트」. 은정 펠스너 옮김. 서울: 한울, 2014.
- Armstrong, Karen, Islam,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0.
- Beatty, Andrew. *Varieties of Javanes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ccou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ellah, Robert N.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70.
- Berger, Peter L. ed.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Beyer, Peter. *Religion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1994.
- Brown, Daniel. *A New Introduction to Islam*, Oxford, Wiley-Blackwell, 2009.
- Carvalho, Jean-Paul. “A Theory of the Islamic Revival.”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No. 424 (March 2009): 0-48.
- Crouch, Harold A. *Government and Society in Malay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Doran, Michael Scott. "Somebody Else's Civil War." *Foreign Affairs*, Vol. 81 (January/February 2002): 22–42.
- Esposito, John L. "Trailblazers of the Islamic Resurgence."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37–56.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Fuller, Graham E. *The Future of Political Isla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Haddad, Yvonne Yazbeck. "The Revivalist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n Revival: An Introduction."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3–22.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Haddad, Yvonne Yazbeck,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ed.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Haneef, Suzanne. *What Everyone Should Know About Islam and Muslims*. Chicago: Library of Islam, 1996.
- Hunter, Shireen T., ed. *The Politics of Islamic Revival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Ibrahim, S. E. "Anatomy of Egypt's Militant Islamic Groups: Methodological Note and Preliminary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12(4) (1980):

432-53.

- Ismail, Muhamad Zaid, etc. "Islah and Tajdid: The Approach to Rebuilding Islamic Civil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Vol. 7, No. 8 (2017): 183-94.
- Lapidus, Ira M. "Islamic Revival and Modernity: The Contemporary Movements and the Historical Paradigm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 40, No. 4 (1997): 444-460.
- Maududi, Sayyid Abul A'la. *A Short History of the Revivalist Movement in Islam*. Trans. al-Ash'ari, 3rd ed. Lahore: Islamic Publications, 1972.
- Naisbitt, John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00: The New Directions for 1990's*.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0.
- Nakamura, Mitsuo. *The Crescent Arises over the Banyan Tree: A Study of the Muhammadiyah Movement in a Central Javanese Town, c. 1910s-201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2.
- Nasr, Seyyed Vali Reza. *Mawdudi and the Making of Islamic Reviv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Rahman, Fazlur. *Revival and Reform in Islam: A Study of Islamic Fundamentalism*. Oxford: Oneworld, 2000.
- Rashid, Ahmed. *Taliban: Militant Islam, Oil and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 New Heaven: Tale University Press,

www.kci.go.kr

2000.

Ruthven, Malise. *Islam in the World*,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Qutb, Sayyid. *Milestones*, rev. ed. Cedar Rapids, Iowa: Unity Publishing, n.d.

Vatikiotis, Michael.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Trimming the Banyan Tree*. London: Routledge, 1996.

Voll, John Obert. "The Revivalist Heritage." In *The Contemporary Islamic Revival: A Critical Survey and Bibliography*. Edited by Yvonne Yazbeck Haddad, John Obert Voll, and John L. Esposito, 23-36.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20&nid=693>. 2018년 6월 9일 접속.

“2050년 유럽 인구 ‘10명 중 1명’ 무슬림... 이슬람교 ‘세계 1위’ 종교돼” [온라인자료]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20&nid=693>. 2018년 7월 9일 접속.

■ ABSTRACT

Theoretical Grounds  
of the Islamic Revival Movement:  
Focused on the Concepts  
of *Jahiliyyah-Salafism-  
Tajdid-Takfir-Jihad*

Weon Jin Choi

Recently most world religions are growing in size, but Islam is increasing particularly rapidly. In addition to growing in size, Islamic communities are attempting to restore their original teachings and ideals for the Islamic community. For the auth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following; The Islamic revival movement, its origins, its development until now and finally, the current acceleration of the Islamic revivals.

The Islamic revival movemen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movements of the world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Muslims believed that for a Islamic revival, the only way to reverse their situation was to oppose modernization. Islamic revivals took dif-

ferent shapes and forms according to how different groups interpreted the Quran, Hadith, and Sunna. Each group sought revival and even employed immoral and violent methods at times to bring about desired resul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Islamic revival movement, the author believe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Jahiliyyah*; *Salafism*; *Tajdid-takfir*; *Jihad*, and how these are interrelated are essential. The author concludes that revival proponents are attempting to obtain their Islamic identity, continuity, certainty, and finally Islamization of the world throughout the movement.

**Keywords:** Islamic Revival Movement, Islamic Revivalist, *Jahiliyya*, *Salafism*, *Tajdid*, *Takfir*, *Jihad*